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친환경 농업국가로 꼽힌다. 쿠바의 유기농은 분변토(지렁이 퇴비)를 통한 흙 살리기가 주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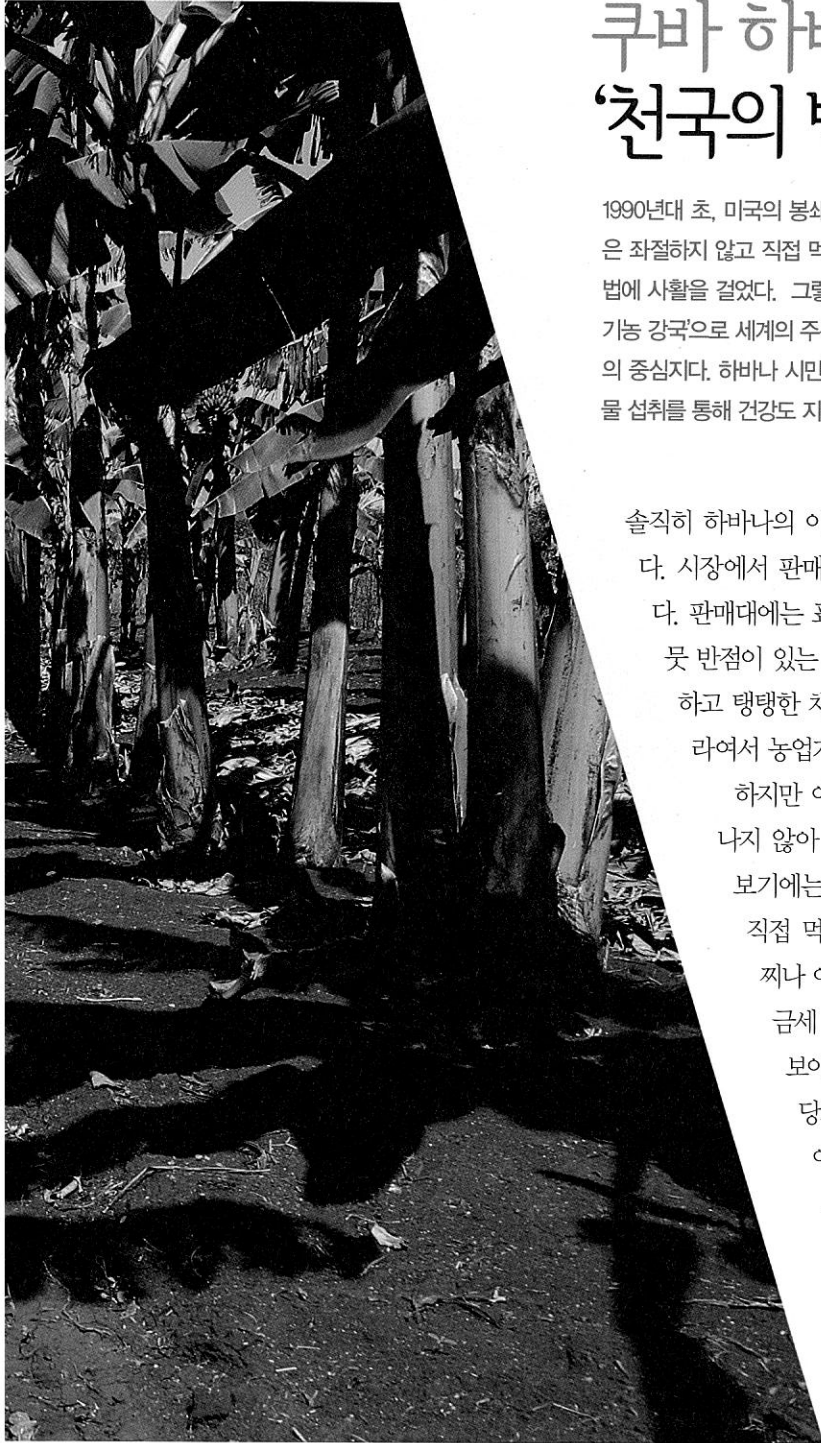
쿠바 하바나의 녹색혁명 ‘천국의 밥상’ 만들다

1990년대 초, 미국의 봉쇄정책과 구 소련의 붕괴로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쿠바. 하지만 쿠바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직접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구를 들었다. 너도나도 밭을 일구고, 친환경 농법에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뒤 나라에 빠졌던 쿠바에 푸른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유기농 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쿠바의 수도 하바나(Havana)는 유기농 도시농업의 중심지다. 하바나 시민들은 발코니와 집 텃밭, 인근 공터 등에 곡류와 채소를 키운다. 유기농 농산물 섭취를 통해 건강도 지켜나가고 있다. 곤궁했던 경제위기를 건강한 녹색혁명으로 뒤바꾼 것이다.

솔직히 하바나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았던 쿠바의 농산물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한국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판매대에는 표면이 거칠고 군데군데 상처가 많은 과일과 시들시들하고 거뭇거뭇 반점이 있는 채소가 놓여 있었다. 한국의 빛깔 좋고 먹음직스러운 과일, 싱싱하고 탱탱한 채소들에 비해 품질이 한참이나 떨어져 보였다. 처음엔 '가난한 나라여서 농업기술이 뒤떨어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필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경솔함이었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쿠바의 농산물은 유기농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겉 보기에는 상품성이 떨어져 보여도 맛이 우수하고 건강에도 좋다. 실제로 직접 먹어본 농산물의 맛은 뛰어났다. 시들시들한 상추와 양배추는 어쩌나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는지 씹을 씹는 것만으로도 밥 한 공기가 금세 사라졌다. 과일은 또 어떤가. 덜 익은 듯 푸르스름하고 까칠해 보이는 오렌지와 아담한 파인애플도 껍질을 벗기면 풍부한 과즙과 당도 높은 속살을 드러낸다. 먹고 나면 입안 가득 풍부한 과일 향이 퍼진다. 생애 최고의 과일 맛을 쿠바에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정한 과일 맛을 알아버린 이후 많은 날들을 맛 좋은 쿠바 과일을 사기 위해 하바나 시장을 찾았다. "쿠바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과일"이라고 답할 정도로 쿠바에 머무르는 동안 당도 높은 유기농 과일에 푹 빠져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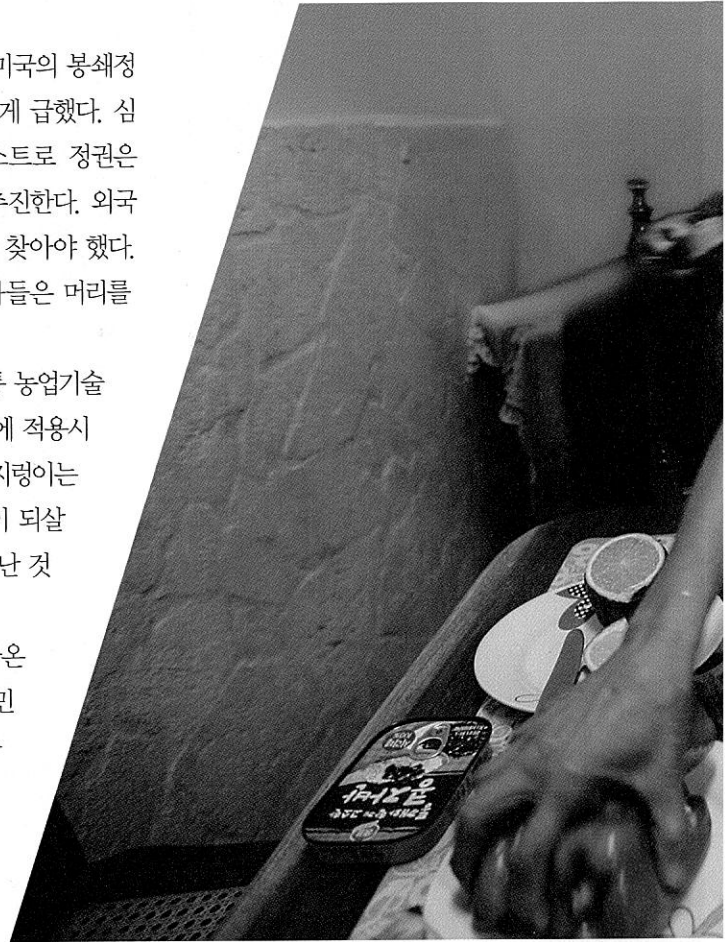


위기를 기회로, 쿠바의 친환경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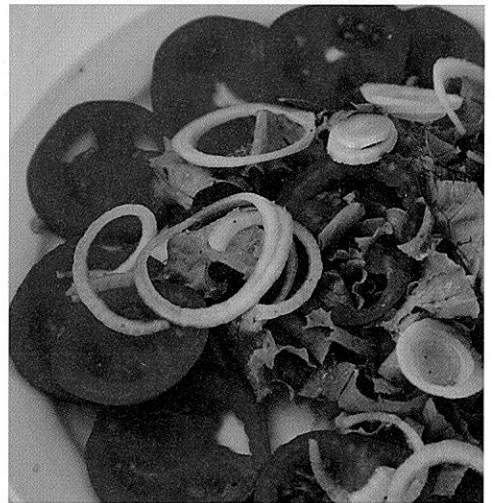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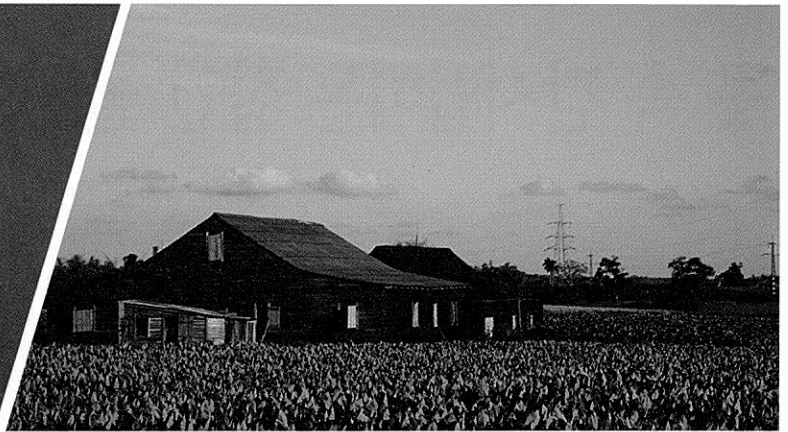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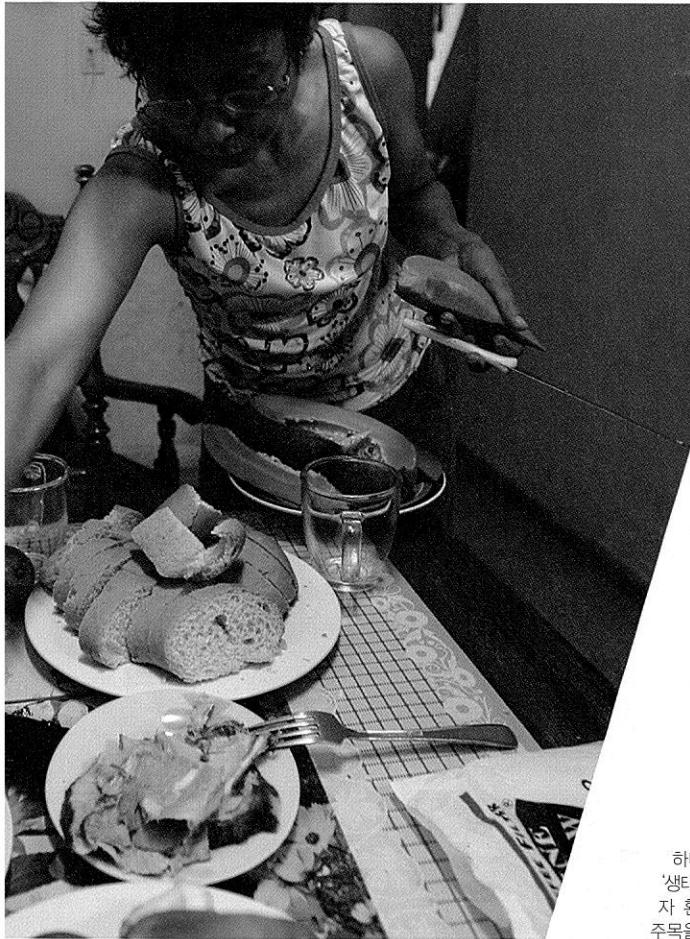
쿠바는 어떻게 세계적인 유기농 국가가 되었을까? 1990년대 초, 쿠바는 미국의 봉쇄정책 강화와 구 소련의 붕괴로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는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다.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국민 평균체중이 10kg이나 줄어들었다. 이에 카스트로 정권은 1991년 9월 '평화 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농업 분야의 대개혁을 추진한다. 외국산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해 온 기존 농업이 불가능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유기농이다. 화학비료, 농약이 없으니 정부와 과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퇴비와 유기비료 개발에 총력을 다했다.

지렁이, 곰팡이, 박테리아 등도 유기농업에 동원됐다. 과학자들은 전통 농업기술과 자재를 재발굴,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시킨 뒤 친환경 유기농법을 현장에 적용시켰다. 특히, '쿠바 유기농의 숨은 주역은 지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렁이는 쿠바 농업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 지렁이 퇴비인 분변토 공급을 통해 흙이 되살아나면서 생산력도 급증했다. 혐오 동물인 지렁이가 '땅속의 농부'로 거듭난 것이다.

도시민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혁명 이후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나온 탓에 쿠바 인구의 80%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도시민들은 살기위해 농업을 도시로 가져왔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쿠바 유기농의 핵심이 된 '도시농업'이다. 하바나 시민들은 발코니와 집 텃밭, 인근 공터와 쓰레기 매립장 등 도시의 비어 있는 땅에 곡류와 채소를 심었다. 콩과 양상추, 토마토, 옥수수 등을 키워 먹을거리를 해결했다. 그것도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100% 유기농법으로 말이다.



하바나 시민들은 발코니와 집 텃밭, 인근 공터와 쓰레기 매립장 등 도시의 비어 있는 땅에 곡류와 채소를 심었다. 콩과 양상추, 토마토, 옥수수 등을 키워 먹을거리를 해결했다. 그것도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100% 유기농법으로 말이다.



하바나는 농지가 도시의 40%를 차지하는 '생태도시'로 재탄생했다. 유기농법의 메카이자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 모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도시 빈터에 텃밭 일군 하바나의 녹색 혁명

친환경 농업의 결실은 단 10년도 되지 않아 나타났다. 죽었던 땅이 되살아났고, 농산물 생산량도 크게 늘어났다. 도시농업도 활발해져 수도 하바나는 농지가 도시의 40%를 차지하는 '생태도시'로 재탄생했다. 생태적 유기농법의 메카이자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 모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쿠바의 녹색혁명의 성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 똑같은 경제난을 겪은 북한에서는 지난 10년간 200여 만 명의 인구가 사라졌지만 쿠바에는 더 이상 굶는 이가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육류 위주의 식생활 패턴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바뀌어 국민의 건강지수가 높아졌고 질병 발생률도 30%나 낮아졌다. 경제위기로 시작된 유기농 운동이 쿠바에 농업혁명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준 것이다. 결국 시련은 도약의 기회가 됐고 하바나 시민들은 위기에서 희망을 건져냈다. 이제 우리는 쿠바의 녹색혁명에서 21세기 한국 농업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작은 카리브 해 섬 쿠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